

# 대구주보

삼위일체 대축일  
청소년 주일 · 생명의 날  
2010. 5. 30. (다해) | 제1677호

## 태아도 인간입니다!

“인간은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한 인격으로서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합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태아들의 수호자 과달루페 성모

### 오늘의 미사

#### 입당송

하느님 아버지와 하느님의 외아드님과 성령은 찬미받으소서. 정녕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셨나이다.

제1독서 잠언 8,22-31

#### 화답송

◎ 주님, 저희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 이 얼마나 크시옵니까!

제2독서 로마 5,1-5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장차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 있으소서.
- ◎ 알렐루야.

복음 요한 16,12-15

#### 영성체송

너희가 하느님의 자녀이기에, 하느님이 당신 아드님의 영을 너희 마음에 보내셨다. 그 영이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신다.

주일의 말씀

## 현대 청소년을 위한 행복 모델, 삼위일체 하느님



전재현 베네딕토 신부  
교구 청소년 담당

여러분은 현재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최근 어느 단체의 '2010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 지수의 국제비교'를 위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삶에 만족하는가'란 질문에 53.9%만이 '그렇다'고 답해 가장 높은 네덜란드(94.2%)보다 40.3% 낮고 OECD 평균(84.8%)보다는 30.9%나 모자라, OECD 26개국 가운데 최하위로 파악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보면, 많은 아이들이 스스로를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외롭다는 등의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우리나라 학생들은 학업과 관련한 스트레스가 가장 심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아직도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의 몸집이 크기 위해 충분한 영양섭취, 적절한 운동과 휴식, 숙면 등이 필요하듯이, 우리 아이들이 보다 더 성숙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시기에 따라 성취해야 할 발달과제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신뢰감', '소속감',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능력', '정체성 확립', '개방성', '친밀한 관계' 등이 바로 그 과제들입니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의 증가, 출산율 저하, 공부 스트레스, 컴퓨터 게임, 아

이폰·아이패드와 같은 현대 기술의 발달 등은 우리 아이들이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해가고 진정한 행복 성취를 위해 나아가는 데에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과 감정을 나누고 성숙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청소년 주일인 오늘,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고, 참 행복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느님을 닮아가야 함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에게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나누고 계시는, 한 분 하느님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러한 사랑의 하느님,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기에 타인으로부터 소외된다든지, 다른 사람을 경계하거나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자신을 고립시켜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 안에 내어주지 않는 한, 결코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없고, 결코 행복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대축일인 오늘, 청소년 주일을 지내면서 우리 아이들이 온전한 성숙과 참 행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다함께 생각해 봅시다.

생명의 말씀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 요한 16, 15 참조

교황 베네딕토 16세 성하의  
제25차 청소년 주일 담화문(요약)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마르 10,17)

제25차 세계 청소년 주일은 2011년 8월 마드리드에 서 개최될 다음 번 세계 청년대회를 향한 여정의 첫 걸음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많은 이가 그곳에서 은총 가득한 경험을 하기를 바랍니다. 청년 대회와 여행을 준비하며, 저는 여러분과 올해의 주제인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마르 10,17)에 관하여 몇 가지 성찰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셨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마르 10,17-22).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셨다.” 이 매우 특별한 만남과 온전히 그리스도인다운 경험의 중심에 바로 주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천과 복음화의 근거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만났다면 아직 그분의 시선을 접해 보지 못한 이들에게 어찌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단

순히 그 자신의 열망과 계획을 충족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 이상을 실천하라고 초대하십니다. “와서 나를 따라라!”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주님의 사랑 가득한 초대에서 비롯되고, 또 사랑 가득한 응답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십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을 일깨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계명들을 알고 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또한 여러분이 하느님의 법에 따라 양심을 세우려 노력하고 계명들을 실천에 옮기고 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취직이 어렵고 확실한 신념과 구체적인 미래관이 없기에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때때로 여러분은 현재의 위기와 그 변화에 맞서 스스로가 무능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의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정과 정의와 평화에 대한 커다란 열망을 키우십시오. 미래는 삶과 희망에 대한 확실한 이유를 찾고 추구할 줄 아는 이들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기만 한다면 미래는 여러분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부어 주시고 또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형성된 여러분의 재능과 선물은 세상에 참다운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바티칸에서  
2010년 2월 22일  
교황 베네딕토 16세

■ 교구 100년사 편찬 위원회

## 교구의 전교사업



대구대목구는 1930년 교구청기구를 개편하고 교구를 재정비하였다. 교구청 사무처 외에 상서국, 비서실, 신학교 위원회, 교리위원회를 신설하였다.

이로서 교구의 세세한 일들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을 교구장이 처리해오던 것을 선교사와 방인사제에게 분배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한편 일제의 통치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에서 냉담자수의 증가와 외교인의 개종이 점차로 줄어들게 됨에 따라 전교를 목적으로 적극적이고 특별한 활동을 꾀지 않는 한 개종자의 수가 감소하리라 선교사들이 생각한다.

그리하여 드망즈 주교는 외교인들의 개종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1922년 교구에서 처음으로 도입하였던 교구에서 보수를 주는 유급 전교회장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될 당시에는 몇몇 선교사들에게서 상당한 회의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켰지만 외교인들의 개종이 눈에 띄게 증가 하게되자 이 제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모든 선교사에게서 인정되었다.

“유급 전교회장들은 냉담교우를 회두시키고 마음씨 착한 외교인들을 교회로 인도하려 애쓰고 있다. 회장들의 성과는 대체로 좋으며 그들 덕분에 영세를 받은 외교인의 수와 현재 교리를 배우고 있는 외교인의 수는 상당하다. 재원이 부족하여 이 유능한 회장들을 늘릴 수 없다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드망즈 주교는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유급전교회장 제도의 도입은 모든 본당에서 큰 성과를 나타냈지만 불행히도 재정적인 형편 때문에 일을 확장 추진하지는 못하였다.

교구에서는 선교사업의 일환으로 무료진료소 사업을 적극 활용하였다. 방인 성직자양성에 심혈을 기울이던 드망즈 주교는 성직자들의 건강이 크게 염려가 되었다. 1930년 각기병 때문에 신학교가 한 달 이상이나 문을 닫아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젊은 방인 사제와 선교사들이 건강상의 문제로 계속 사망함에 따라 교구운영에 큰 손실을 가져온다고 생각한 드망즈 주교는 1931년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원과 주교관 경내에 2개의 동으로 된 성직자들을 위한 병원을 설립하였다.

(다음 주보에 계속...)

### 모두가 함께

박성규 엘리시오





영성의 향기

::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주일 미사 때 마다 사도 신경을 하면서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창조주이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분 사랑에 의해 우리는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모습과 남의 모습이 모두 다르고 각자 고유한 모습으로 만들어 졌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일은 내 모습과 남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즐기며 또한 그러한 태도에서 서로에 대한 관대함과 여유를 갖는 일입니다. 이것이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 행복과 불행

행복함을 느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인간이 피조물이란 사실을 잘 알아듣는 것이 행복을 위한 한 가지 방법입니다. 피조물이란 하느님에게로부터 능력과 자질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만큼 감사하고 소박하게 봉사하면 됩니다. 불행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과 나의 것을 비교하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느님 선물로 알고 감사드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남과 비교하면 불행이 시작됩니다. 주신 것에 대해 만족하는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권 가타리나 수녀 -

짧은 글 깊은 생각

10% 밖에 되지 않는 인간의 몫



‘마쓰시타 전기’는 초등학교 중퇴가 학력의 전부인 시골 청년 마쓰시타 고노스케(1894-1989)가 1917년 자본금 100엔으로 오사카의 조그만 공장에서 시작해 일류기업으로 성장시킨 회사입니다. 마쓰시타 전기에서는 고객이 “마쓰시타 전기는 무엇을 만드는 회사입니까?” 하고 물으면 “마쓰시타 전기는 인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울러 전기제품도 만듭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전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을 존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마쓰시타에게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마쓰시타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90%가 운명이었다는 생각이 드네. 뭐 하나 특별한 재주도 없는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운이 좋았기 때문이지. 그 행운에 언제나 감사할 따름이네.” 이 말을 들은 젊은이는 놀라며 “그럼, 성공이 운에 달렸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반문했습니다. “그렇지, 모든 것은 운명으로 이미 정해져 있다네. 하지만 젊은이, 내가 90%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게. 남아 있는 10%가 인간에게 맡겨져 있는 몫이지. 예를 들어 나를 배라고 한다면 ‘내가 큰 배인가? 아니면 작은 배인가? 그것은 각자의 운명일지도 모르지. 그러나 배를 움직이는 것은 바로 인간이라는 거야. 그 배가 깊고 푸른 바다를 건너 목적인 항구에 무사히 도착하고 못하는 것은 바로 자신에게 달려 있다네. 그러므로 10% 밖에 되지 않는 인간의 몫인 자신의 노력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지. 그것도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 년을, 그리고 몇 십 년을 한결 같이 노력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몫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하네. 내게도 자네에게도 똑같이 90%의 운명이 주어졌네. 자, 나는 10%의 성실한 노력을 할 준비가 되었는데 자네는 어떤가?’

- 옮겨온 글입니다. -

■ 교구설정 100주년 준비위원회

## 대구대교구 산하기관 4 - 의료기관 -

전광진 엘마노 신부 / 교구 사목기획 실장

천주교대구대교구는 교구산하에 여러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봉사해왔습니다. 교구산하 의료기관은 아니지만 수도회가 운영하는 의료기관도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지역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은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교회의 정신에 따라 1980년 개원하여 24개 진료과목에 775병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입니다. 의료원장은 김준우 신부이며 병원장은 여형태교수입니다.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은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 있는데 특히 간이식 분야, 치아임플란트 분야에서 명성을 얻고 있고 지역민들에게 더욱 좋은 의료봉사를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병원**은 14개 진료과목을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장은 박강수신부이고 대구시 북구 읍내동에 있습니다.

**논공가톨릭병원**은 달성산업단지 근로자와 달성군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의료봉사를 위해 천주교대구대교구가 1988년에 설립하였습니다. 특히 노인성질환 환자들을 위해 가톨릭치매센터와 시메온의 집 등의 시설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병원장은 신영규신부이고 경북 달성군 논공읍에 있습니다.

**가톨릭피부과의원**은 아토피, 탈모, 여드름, 무좀 등 피부염을 치료하는 전문병원으로 병원장은 박강수신부이고 대구시 북구 읍내동에 있습니다.

가톨릭피부과의원은 나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오스트리아에서 온 엠마 프라이싱거 간호사를 중심으로 1962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엠마 프라이싱거 여사는 가톨릭피부과의원 원장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오스트리아 가톨릭부인회와 독일 구라협회의 지원으로 나환자들과 주민들을 무료로 치료해주어 주민들의 찬사를 받았고 나병퇴치에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 후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고 나환자들이 감소하면서 나환자 생계를 위해 노력하는 등 한평생을 대부분 나환자


들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릴리회**가 나환자들을 돕기 위한 후원회입니다. 릴리회는 1970년 가톨릭신문에 소개되었던 구라계몽광고를 보고 가톨릭피부과의원을 찾아온 한국은행 부산지점에 근무하던 여직원 김광자씨가 나환자들의 처지를 보고 직장 여직원 20명과 뜻을 같이하여 정기적으로 회비를 모아 나환자들을 돕기 위한 모임으로 결성되었습니다. 릴리라는 이름도 '작고 아름다운 아가씨'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아가씨들만이 아니라 누구나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1996년 엠마 프라이싱거 원장이 은퇴한 후 사제들이 원장을 맡아 엠마 원장의 업적과 정신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대구정신병원**은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정신분열증을 비롯한 정신과전문병원으로 우리 교구가 대구광역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장은 김철재신부입니다.

**대구파티마병원**은 가톨릭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1956년 포교 성베네딕도 수녀원이 설립한 병원으로 대구시 동구신암동에 있습니다. 20개 진료과목을 운영하고 있고 병원장은 장증태수녀입니다.

**천주성삼병원**은 가톨릭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2003년 경기도 미리내의 천주성삼성직수도회에서 설립한 병원으로 대구시 수성구 신매동에 있습니다. 13개 진료과목을 운영하고 있고 병원장은 주명성신부입니다.

**포항성모병원**은 가톨릭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1977년 예수성심시녀회 수녀원에서 설립한 병원으로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습니다. 20개 진료과목을 운영하고 있고, 병원장은 손경옥수녀입니다. 







■ 시노드 마당

## “새 시대 선교”

임석환 스테파노 신부 / 교구 시노드 사무국장

선교를 위해서는 교회가 우선적으로 복음화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위의 교서에서는”교회가 복음 선포를 위한 새로움과 활력과 힘을 지니려면 언제나 교회가 복음화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복음화 하려면 끊임없는 회개와 쇄신으로 자신을 복음화 하여야 합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새 시대의 선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관점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선포할 ‘모든 피조물’의 범주 속에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제도, 사상, 문화, 정치, 그리고 사회적인 풍조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교황 바오로 6세께서도 현대의 복음선교에서 “복음화란 기쁜 소식을 인류의 모든 계층까지 전해져야 하며, 복음의 힘으로 인류를 내부로부터 변화시켜 새롭게 하는 것이다. 복음화의 목적은 바로 이러한 내적 변화이다. 한마디로 표현하여, 교회가 복음화한다는 말은, 교회가 자신이 선포하는 메시지의 거룩한 힘을 통하여 모든 개인과 집단의 양심, 그들의 활동, 그들의 삶과 구체적인 환경과 문화를 변화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이 복음화를 설명하는 가장 알맞은 표현일 것이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둘째, “복음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

라 세례를 통해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이며 하늘나라 공동 상속자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런 우리들에게 산상설교(마태5-7장)를 통하여 참 삶의 길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복되다’, ‘행복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셋째, “선교는 우리의 사명이자 의무이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복음을 선포하고 선교할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자격이나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만이 선교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친구와 이웃에게, 가정과 직장에서 복음을 선포하여야 합니다.

많은 본당에서 예비자 모집을 위해 가두선교, 금식기도, 고리기도, 성체조배, 등을 하고 있고, 현수막과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선교를 위해 특별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교의 노래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차 시노드에 의해 교리서로 ‘함께 하는 여정’의 책이 채택되었고, 평신도 교리교사 양성을 위해 교구에서는 교리교사 학교도 운영하였습니다. 많은 본당에서 이 책을 사용하고 있고 평신도들이 교리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새 시대에 맞게 보완하고 재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임 행사★

작은예수회 창립26주년 감사제

- 일시: 6.7(월) 11:00~16:00
  - 특별강론: 박성구 · 박효철 신부
  - 장소: 경기도 현리 작은예수회마을
  - 교통편: 지역별 출발 있음, 문의: 02-777-6444
-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성소모임★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성소모임

- 일시: 6.5(토) 16:00~6(일) 14:00
- 대상: 고통학생 이상 ~ 만 31세 이하 미혼 남성
- 문의: 010-8353-2323

★피정★

군중후원회 일일피정

- 일시: 6.7(월) 10:00~17:00, 교구청내 대강당
- 우리교구 군중신부 12분과 함께하는 피정
- 주제: 하나님과, 이웃과 잘살아보세!
- 회비: (중식)3천원, 문의: 군중후원회 256-0815
- 구입처: 후원회사무실,본당지회장,당일현장판매

마음을 더 가볍게 하는 2박 3일 치유피정

- 일시: 6.18(금) 13:00 ~ 20(일)
- 장소: 마리아 피정센터(부산시 남구)
- 강사: 최봉도 F, 하비에르신부
- 피정비: 11만원(부산 045-01-037552-0, 티없으신)
- 문의 및 접수: 051-634-0228/ 011-9503-0228

빛사랑 전례음악연수 1

- 일시: 6.19(토) 18:00~22:30
- 장소: 성심교육관(현충로2번출구)
- 대상: 청년, 일반신자 전례및성가봉사자
- 회비: 만원, 신청: 010-2649-2045
- 주최: 예수성심시녀회 대구관구

부산 분도명상의 집 영성피정

- 일시: 6.11(금) ~ 13(일)
- 주제: 시편명상 성경책 피정비 9만원
- 신청: 051-582-4573/ 010-6650-4574

가정성화를 위한 꽃등대 성령피정

- 일시: 6.19 (토) 11:00~20(일) 16:00
- 대상: 가정성화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분

- 인원: 100명 선착순, 회비: 3만원
- 문의 및 접수: 011-490-5345, myungkkot@hanmail.net

★교육 모집★

6월 영어성경공부반 모집

- 개강: 6.1(화) 10:00~12:00 화, 목 강의
- 과정: Romans 및 Numbers, 월: 2만원
- 문의: 관덕정 신관 254-0151/ 010-2578-5535

제42기 선교대학 개강

- 일시: 6.5(토) 10:00~16:00
- 장소: 계산주교좌성당 문화관3층
- 주제: 찾아가는 선교(선착순무료신청)
- 지도: 이관석 신부
- 주관: 한국천주교가두신교단 781-6100

관덕정 6월 특강

- 일시: 6.5(토), 관덕정성교기념관
- 강사: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총장 황석모(요한)신부
- 문의: 254-0151

가톨릭근로자회관 6월 개강 안내

- 에니어그램1단계: 18(금)~19(토)선착순30명
- 스페인어초급- 화요일 11:00
- 영어초급- 19(토) 10:00
- 일본어초급- 화요일 10:00, 금요일 19:00
- 장소: 가톨릭근로자회관 253-1313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부설 요양보호사교육원

- 요양보호사1급(국가자격증취득반) 3기 개강
- 기간: 6. 21(월)~7. 30(금),매주월~금 5회
- 접수: 6. 11(금)까지, 내방접수
- 장소: 교구청 교육원가동3층, 255-7221
- 대상: 요양보호사활동에 관심있는분 30명

파티마병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신규 교육

- 일시: 6.14(월)~16(수) (수강료: 2만원)
- 인원: 입급선착순30명(입급후연락)
- 입금계좌: 대구은행(이해수) 253-13-000810
- 문의: 940-7058/ 940-7415

몽골 선교지 방문단 모집

- 기간: 8.9(월)~12(목)
- 문의: 몽골선교후원회 042-256-4111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주영어마을

- 초 · 중학생 영어캠프 선착순모집
- 캠프기간: 7.26(월)~8.21(토)
- 접수기간: 6.7(월)~11(금)
- 문의 및 접수: 054-777-8000, www.gev.ac.kr

대가대 부동산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 부동산경매채테크과정 강사 우형달
- 개강: 5.26(수) 2개일 수,목 10:00~13:00
- 1:1멘토링교육, 무료재수강 가능!!!
- 장소: 대구가톨릭대학교 감삼동캠퍼스
- 문의: 568-9800/ 010-4161-4443

새얼이간학교 학생 및 교사 모집

- 학생: 중학부 · 고등부 과정(학비무료)
- 교사: 대학생 또는 젊은이들
- 장소: 가톨릭문화관내(1호선 교대역)
- 문의: 010-9543-9632 / 010-2501-6921

청년 프란치스코회일 모집

- 자격: 만 35세 이하 가톨릭신자
- 봉헌식: 8.28(토) 14:00
- 장소: 월배 프란치스코수도원 경당
- 문의: 632-9800/ 010-7503-8852

성요셉재활원 입소자 모집

- 대상: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054-954-4176)

젊은이 해외 성지순례(마감: 6.28(월))

- 일시: 7.26(월)~8.6(금) 이집트, 이스라엘
- 주최: 아씨의 프란치스코 전교 수녀회
- 문의: 윤카타 수녀 010-5313-0241

★안내★

경주 산내성당 새성전에 쓰일

성물을 봉헌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 제대, 십자가, 감실, 14처
- 문의: 054-751-1571/ Fr. 이창수 010-9584-0996

교구 법원 공시 (253-9550)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 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김용진, 조홍래, 김정재(수산나), 이인숙  
(가타리나), 조은주(로사), 김진성(안드레아)

미사	일시	장소	미사	일시	장소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6월 3일(목) 오후2시	성모당	성모의 가시흔 미사	6월 5일(토) 오전 10시	월배성당내 수도원
미사회 미사	6월 4일(금) 오후2시	성모당	푸른군대 첫 토요일 신심미사	6월 5일(토) 오후2시	성모당

**연세소아발달연구소**  
(아동, 청소년, 성인, 가족치료센터)

복사부 치료비 지급 (바우처 제도)  
매월 인당 128,000~220,000원 차등 지원

\*심리, 놀이, 미술, 음악, 언어, 학습치료ADHD등  
소장 조옥형(아네스) / 652-9000

**카리타스 요양센터**  
Caritas LONG TERM CARE CENTER

주거보호·방문요양·방문목욕서비스  
1577-9913 / 636-5567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요양보호사교육원  
033)255-7222;교구청(성모당내 교육원 가동3층)

리식, 백내장수술 전문안과  
**대구 연세안과**

iFS아이리식, 백내장, 노인수술  
의 학 박 사 현,연세대의과교수 원장 박 중 원 (소시모)

(지하철1호선 영대병원역 2번출구)  
상담전화 626-8881~5

긍정에너지가 넘치는  
생인 행복을 심는 치과병원

상인 롯데백화점 주차장 입구  
롯데리아 건물 5층  
T.633-7504/634-7504  
원장: 강원일(안드레아),권광,구선주

**오월의 정원**  
www.maygarden.kr

결혼 · 돌 · 회갑 · 기업행사  
중구 문화동 대구사티센터(구. 밀리오레)  
예약문의 664-7000

사회복지법의 서정길 대주교재단  
**데레사소비센터**

수익금 전액은 사회사업을 위해 사용됩니다.

- 청과, 야채, 선어, 정육
- 신선, 가공식품, 공신품, 생필품
- 생활, 패션잡화, 수입주방, 수입가전

765-1500 (어린이회관옆은편)  
대표이사 장영일 (그라산도)신부

가정, 사무실, 관공서, 해외, 이사전문  
**로제이사**  
www.logen2424.co.kr

전국화물용달취급 대표: 서정원(프랜치스코)  
T.754-6688 H.P.010-9516-5511

●신속하고 간편한 대출  
-야파트담보,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대출-

●높은 수익과 안전한 예금

**유니온 저축은행**  
www.kusb.co.kr  
TEL: 256-1122  
대표이사 박관희(안토니오)